



제673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2년 5월 4일)

과학으로 보는 수덕사 연화대좌

양석진, 203호 불교회화실, 18:00~18:30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에서는 이번 전시를 위해 수덕사 대웅전 목조연화대좌와 연꽃잎 편 일괄에 대해 과학적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연화대좌는 지름 124.3cm, 높이 25.6cm의 원통형 대좌로, 목판 측면에 연잎 모양의 부조를 부착하여 장식한 형태입니다. 연꽃잎 편 중 30점은 본체에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X선 투과 촬영^{soft X-ray}으로 연화대좌의 내부 구조 등 상태를 파악한 결과, 중앙에서 십자 형태의 큰 지지대가 확인되었습니다. 지지대를 기반으로 원형 목판을 제작하고 길이가 긴 못으로 측면에 연꽃잎 편을 고정시켰습니다(그림1). 또한 휠과 뒤틀림 방지를 위해 상·하부의 판재는 직교방향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따로 분리된 연꽃잎 편은 기존에 수리된 편과 본래 상태를 유지하는 편을 선정하여 컴퓨터 단층촬영^{CT}으로 상태를 조사했고, 마이크로 X선 형광분석^{μXRF}으로 안료를 분석했습니다. CT 조사 결과 일부 연꽃잎 편의 경우 원 수종과는 다른 수종의 나무를 사용해 상부를 복원한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그림2). 복원재 접합면에서는 접착제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복원된 연꽃잎 편 목심은 9.52mm, 목심 위 문양의 최대 두께는 3.39mm로 조사되었습니다. 본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연꽃잎 하부에서는 대좌와 고정하기 위한 못 구멍이 확인되었고, 상부에 옹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목심은 19.29mm, 목심 위 문양의 최대 두께는 4.89mm로 조사되었습니다(그림3).

연꽃잎 편의 상단 가장자리와 중앙부에 부착된 문양을 X선 회절분석^{XRD}으로 분석한 결과, 점토광물을 구성하는 석영(Quartz), 백운모(Muscovite), 규산염(Silicate), 논트로나이트(Nontronite) 등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점토광물에 문양을 찍어 연꽃잎 상단을 장식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표면에는 크게 연백(백), 남동광(녹청), 진사/주(적), 금(금)의 채색 안료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수리된 연꽃잎 편에서는 크롬(Cr), 코발트(Co), 아연(Zn), 티타늄(Ti) 등도 추가로 검출되어 아크릴 물감과 같은 현대안료를 덧칠하여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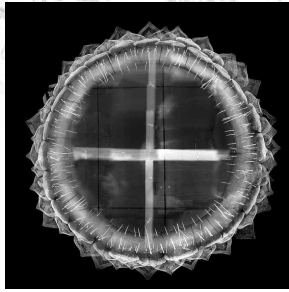


그림1. X선 투과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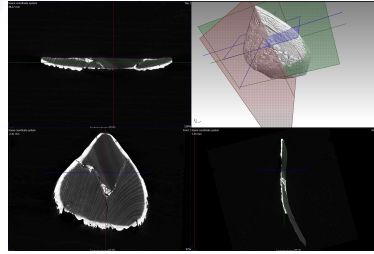


그림2. 복원된 연꽃잎 편 CT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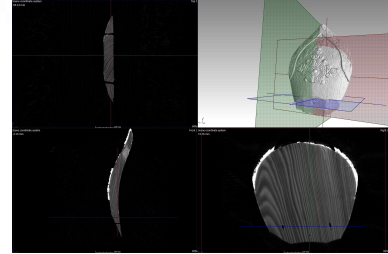


그림3.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연꽃잎 편 CT조사 결과

제673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2년 5월 4일)

새롭게 만나는 아스테카!

정현, 121호 특별전시실, 18:00~18:30

‘아스테카’는 마야와 잉카와 함께 아메리카 대륙 3대 문명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아스테카는 우리에게 꽤 낯섭니다. 그들의 역사와 문화 대신, 전쟁과 인신공양의 잔혹한 이미지와 스페인 정복자를 자신의 신으로 오해한 멸망 이야기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소아메리카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 가운데 하나였으며 견고한 통치체제 위에서 번영하였습니다. 활발한 정복 활동과 공물 시스템은 메소아메리카 전역을 하나로 연결하였으며, 예술과 지식의 발전도 상당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아스테카를 소개하는 이번 전시는 그동안 우리가 관심 갖지 않았던 아스테카의 역사와 문화의 실제 모습을 살펴볼 것입니다. 최근 연구와 발굴 조사 결과, 아스테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아메리카 대륙 침략을 정당화하고 새로운 종교를 강요하였던 유럽 정복자의 과장과 왜곡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전시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잔혹함으로 치부하였던 그들의 희생제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스테카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시스템은 그들의 독특하고 복잡한 세계관과 우주관을 바탕으로 합니다. 아스테카 사람들은 신들의 희생으로 태양과 세상이 탄생하고 올바르게 작동한다고 여겼으며, 인간 역시 이러한 신들 덕분에 존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전시에서는 먼저 아스테카 사회를 지배하였던 그들의 세계관을 소개한 뒤 자연, 경제, 전쟁, 정치, 예술, 지식, 제의 순으로 아스테카 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봅니다. 이번 전시가 그동안 역사와 신화가 혼재하고 과장과 왜곡으로 가려졌던 아스테카의 진정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림 1. 지하세계의 신 므틀란테쿠틀리



그림 2. 비와 풍요의 신 찰치우틀리구에 화로



그림 3. 비의 신 틀랄록을 그린 항아리



그림 4. 바람의 신 에에카틀

테마전 <빛의 향연-예산 수덕사 괘불> (1)

유수란, 203호 불교회화실, 19:00~19:30

1673년(현종14)에 조성된 <예산 수덕사 괘불>은 화면 바깥을 꾸미는 장황을 포함한 전체 높이가 10미터에 달하는 괘불입니다. 법당 앞마당에 걸리면 아무리 멀리 있더라도 부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큼니다. 사찰에서 괘불을 직접 볼 기회는 매우 드뭅니다. 사세가 기운 사찰은 수십 년이 지나도록 괘불을 걸 기회조차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괘불과 마주할 수 있는 날이 흔치 않기에 그 옛날에도 괘불이 걸린 날에는 모두 함께 모여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폭이 25~36cm가량 되는 삼베 22폭을 이어 만든 바탕에는 신비로운 빛이 갖가지 색으로 피어나고, 화려하게 장엄된 부처와 부처를 향해 모여드는 이들이 화면 가득 자리합니다. 한정된 화면에 여러 존상을 배치하려면 각각을 겹쳐서 그려야 하는데, <예산 수덕사 괘불>에서는 존상 사이에 여백을 표현해 화면 곳곳에 퍼진 빛과 중앙에 자리한 노사나불에게 오히려 시선이 집중됩니다. 부처를 중심으로 피어나는 빛은 부처의 초월적인 힘을 강조하는 듯합니다. 가르침을 전하는 부처뿐만 아니라 깨달음을 향해 정진하는 보살과 제자들, 그 가르침을 수호하는 수많은 신의 존재는 서양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만큼이나 다채롭습니다.



그림1. 법당 앞에 걸린 수덕사 괘불

괘불은 그 자체로 우리를 한 순간에 압도합니다. 불교의 사상과 교리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괘불을 마주하면 여래의 존재감과 위대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정된 색채 속에서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왔던 옛사람들에게 괘불은 어떤 느낌을 주었을까요? 깨달음을 향해 정진하고 수행해온 승려들에게 눈앞에 펼쳐진 화려한 빛의 세계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수목화처럼 담백한 수행과 정진만 있을 것 같은 조선의 불교문화에도 이처럼 화려한 형상으로 사람들을 압도하는 괘불이 있습니다.

테마전 <투루판 지역의 한문자료>

권영우, 307호 중앙아시아실, 19:00~19:30

중앙아시아실에 있는 이 독특한 전시품은 죽은 자의 시신을 눕히기 위한 시신 깔개로 원래는 종이문서가 자리를 감싸고 있는 형태였습니다. 갈대줄기를 엮어 짠 샷자리는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 위치한 투루판 지역에서 6~8세기에 보편적인 장의용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림 1. 시신깔개(문서 분리 전), 투루판 아스타나 230호묘, 당 703년 매장

1912년 일본 오타니[大谷]탐험대는 투루판 지역 당 귀족의 공동무덤인 아스타나 230호묘에서 이것을 수습했습니다. 이 문서 조각은 국내 유일의 당나라 관문서로, 이것과 같은 문서의 일부가 중국 신장박물관과 일본 류코쿠대학에도 소장되어 있습니다. 즉, 탐험대가 일본으로 반출한 시신깔개와 부착 문서는 머지않아 다시 우리나라와 일본으로 분산되었고, 미처 수습하지 못하고 무덤에 남겨진 문서 조각이 이후 중국 측에 의해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이 문서의 정체는 바로 당나라의 최전성기인 “679년도 전국의 예산 집행에 대한 지침”으로, 당의 중앙 정부가 영토로 편입된 이 지역[西州]의 세수稅收를 실제로 운용하기 위해 하달한 문서였습니다. 문서에는 당나라 전역에 대한 중앙 정부의 재정 운용의 실태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서는 그때까지 이 지역에서 출토된 문서가 변방 역사의 일면을 보여주는 문자자료에 불과하다는 그간의 인식을 불식시켰고, 당 전기 국가재정사의 사료 부족을 메울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출토문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편 1995년, 국립중앙박물관에도 중·일 측의 문서와 같은 문서의 일부가 붙어 있는 소장품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적힌 면이 안쪽으

로 붙어 있거나 접혀 있었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에 국립중앙박물관은 문서의 분리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분리된 문서 조각은 기존에 알려진 예산 집행문서 2장 외에 “이 지역 현 소속 도주한 병사의 처분에 관한 문서” 2장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이 문서는 무덤에 남아 있다가 마지막에 수습된 중국 측 문서 조각들과 완벽히 접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 측 문서도 국박 소장 시신궐개에 붙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한·중 소장 문서를 통해 온전한 시신궐개의 원형을 추정할 수 있었고 일본 측 문서 조각은 현존하지 않는 또 다른 시신궐개에 붙어 있던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중국 측 문서 조각과의 접합으로 10개의 조목을 새롭게 확인 또는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드러난 문서에는 당 전역에서 거둔 조세의 배분·보관 및 운송, 호랑이 등 맹수를 죽인 자에 대한 포상 재원, 외국 사신의 접대비용 마련 등에 관한 흥미로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두 문서는 일찍이 장의용품의 포장재로 사용되어 문서로서의 효력을 잃어버렸지만 타임캡슐과 같은 무덤 속에서 기적적으로 보존되었다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편집되지 않은 문서로 복원되어 1,300여 년 전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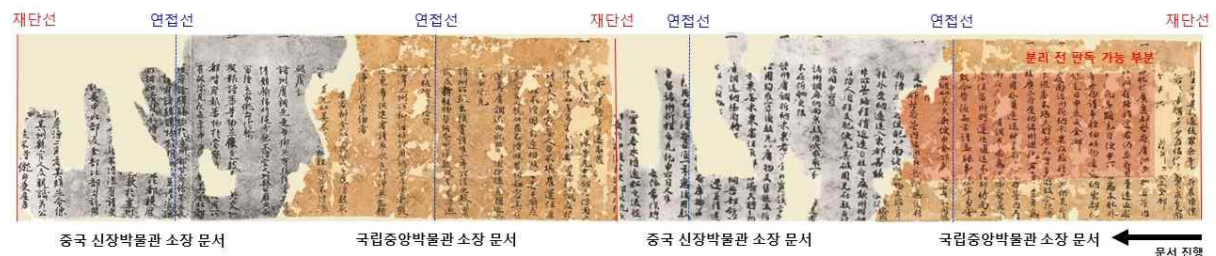


그림 2. 한·중 소장 문서 조각의 접속